

## 공격드론 활용 첨단 기술과제 전투실험

육군교육사, 실전적 표적 식별·타격  
민간 제품 실전환경 제공·성능 검증  
테스트베드 역할·전력화 가능성 모색  
민·관·군·산·학·연 방산생태계 확대

‘드론’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는 전장환경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에 발맞춰 ‘현용 전력 극대화, 미래 전력 창출’의 산실 육군 교육사령부(교육사)가 공격드론 기술 확보에 필요한 검증의 장을 열었다.

교육사는 4일 경기 양평군 일대 훈련장에서 강관범(중장) 사령관 주관으로 다양한 종류의 공격드론을 활용한 첨단 기술과제 전투실험을 했다. 전투실험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정책부와 연구기관, 방산업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관련 기사 7면

교육사는 지난해부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등과 연계해 전투실험을 하고 있다. 산·학·연이 보유한 첨단 과학기술의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하고 군이 필요로 하는 소요와 기술을 파악해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간이 보유한 첨단 과학기술 수준을 확인해 전력 개발 방향성과 소요 창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중소 방산업체 개발 시제품의 ‘테스트베드(Test bed·시험대)’ 역할도 하고 있다.

공격드론 분야는 탄약 설치와 발사제어 장치 개발, 실사격훈련장 확보, 기체 감항인증(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인증), 탄약 개발, 사용승인 절차 등에서 어



강관범(맨 오른쪽) 육군교육사령관이 4일 경기 양평군 일대 훈련장에서 열린 공격드론 활용 첨단 기술과제 전투실험에서 참가업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윤청 기자

려움이 있어 민간 자체 추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사 관계자는 “국내 한 방산업체가 공격드론을 개발하고도 장기간 실사격환경을 확보하지 못해 해외에서 시험을 진행한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산업체에 훈련장과 감항인증 등을 지원해 공격드론 개발을 촉진하면서 군이 주도하는 전투실험의 폭도 넓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전환경 제공과 군에서의 성능 검증 △개발 효율성 확보와 비용 절감 △국산 기술 자립성과 신속한 전력화 기반 확보 △안전 확보와 위험 최소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전투실험에서는 업체들이 보유한 ‘직충돌드론’ ‘초소형 자폭드론’ ‘발사형 드론’ ‘군집드론’ 등이 표적을 식별·타격하며 운용 안정성과 정확도를 평가받았다. 참석

자들은 표적 성격에 따른 최적의 공격드론 활용방안과 전력화 가능성을 모색했다.

강 사령관은 “전장환경 변화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빨라진 상황에서 민간이 보유한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력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전투실험을 통해 민간 개발제품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한편 민·관·군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방산생태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KOREA의 NEXT를 주도하다**

### 고려사이버대학교 군위탁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25.12.1 ~ 26.1.14

- 매 학기 수업료 50% 감면
- 군사훈련 기간 출석 인정 및 시험 유예 신청 가능
-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 최대 3개 전공 선택 가능
  - 로봇공학부, AI·데이터과학부, 소방안전학부 등 다양한 전공 개설

카톡 [고려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전화 02-6361-2000